

『기노카와(紀ノ川)』에 나타난 대립과 융합

- 모녀의 모성상 변화를 중심으로 -

김 성 은*

(e-mail: ichigo127@naver.com)

目 次

- | | |
|---------------|---------------|
| 1. 머리말 | |
| 2. 작가의 모성관 | 4. 인과관계로써의 융합 |
| 3. 모녀의 극단적 대립 | 5. 맺음말 |
-

1. 머리말

아리요시 사와코(有吉佐和子)의 대표작인 『기노카와(紀ノ川)』¹⁾는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쇼와(昭和)를 살아가는 ‘하나(花)’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성 3대(代)²⁾의 삶을 그렸다. “아리요시의 작품에 내포된 성(性)이란 여성이 가지는 특유의, 그리고 가장 고귀한 개념으로, ‘모성’을 최일선(最一線)에 두었다”³⁾. 작가의 심중에는 모성을 여성 최고의 덕성(德性)으로 찬양하고 동경한다. 따라서 어머니를 단지 자녀를 둔 자의 역할을 초월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성체(性體), 그리고 그 상위에 위치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무엇으로 격상시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향은 중심인물인 어머니 하나와 딸 후미오(文緒)에게도 그대로 표출된다.

『기노카와』의 선행연구 중 지카미 고(千頭剛)는 『기노카와』를 필두로 한 연대기적⁴⁾ 형식이 아리요시 문학의 개성이며 제일 육화(肉化)된 방법이라고 평하였다.⁵⁾ 스게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일본근현대문학.

1) 1959년 『부인화보(婦人画報)』에 1월부터 5월까지 연재된 후 6월에 간행되었다.

2) 할머니 ‘도요노(豊乃)’를 포함하여 ‘여성 4대(代)’로 서술하는 평자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기노카와(紀ノ川)』의 문고본 초판 해설자인 ‘가즈라(桂芳久)’의 의견을 따른다. (桂芳久(1964)「解説」, 『紀ノ川』, 新潮社, p.270)

3) 佐古純一郎(1962)「有吉佐和子」, 『国文学 解釋と鑑賞』27-10, 至文堂, p.73

가와 노리요시(助川德是)는 아리요시가 시대나 역사, 권력에 대한 ‘인간의 선의’와 ‘강인한 신뢰’를 기조에 두고 작품을 집필하였으며, 이 작품 속 여성을 통해 보여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여성의 생명력은 우아하고도 강렬하다는 일관된 주제를 가진다고 해석했다.⁶⁾ 그리고 주인공 하나를 당시 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분석한 논문⁷⁾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인물의 표면적인 이미지 분석에 머문 경향이 있어 작품 전체를 고찰하는 포괄적인 시각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하나뿐만 아니라 변혁기라는 시대상의 영향을 받은 딸 ‘후미오’를 아울러 분석하며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우선 주인공인 하나는 시대에 앞선 고등교육을 받았으나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라 전통적인 보수교육관에 길들여졌다. 그러나 ‘전통 모성상(母性像)’인 현모양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머니에 비해 데모크라시의 영향을 받은 후미오는 개혁성향이 강한 여성이다. 본 연구의 발단은 하나뿐만이 아니라 극단적 대립구조를 이루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에서 배제되었던 후미오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에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아리요시의 모성관이 이들 모녀에게 어떤 형태로 투영되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인지하는 모성은 과도한 긍정과 부정이라는 극한의 상반된 시각이 있다. 따라서 이 양 측면은 각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모성을 일방적으로 임신, 출산 등의 생물학적 속성과 연관시키며 주입식으로 찬양하거나, 그 반대로 어머니를 단지 가부장제의 지배 담론을 수호하는 존재로만 부정하는 것은 모성성이 여성적 체험의 구체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극단의 편협적인 사고에 갇혀있던 모성의 순수성을 문학 작품 속에서 제대로 직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아리요시의 평상시 지론이었던 “남성이 쓰지 못한 부분을 여성이 보충해서 메워야 한다”는 허스토리(herstory)⁸⁾적인 의식에도 그 기반을 둔다.

본고에서는 가치관과 시대 변화의 영향으로 차이를 보이는 모녀관계인 두 여성⁹⁾을 중심으로 모성상의 변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기노카와』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모성상을 분석하고 대립구조를 이루는 하나와 후미오에 나타난 근본성향의 괴리를 파악하여 ‘상실’이라는 요소가 각 인물의 모성상에 끼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아리요시의 작품세계는 ① ‘전통예능’을 소재로 다룬 작품, ② 시대물이라 할 수 있는 ‘연대기적(가계)소설’, ③ 사회문제를 다룬 ‘사회파 소설’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 千頭剛(1975) 『有吉佐和子』, 汐文社, p.54

6) 助川德是(1972) 「近代女流の文学 有吉佐和子」, 『国文学 解釋と鑑賞』 37-3, 至文堂. p.120

7) 藤沢全(1980) 「有吉佐和子 「紀ノ川」の花」, 『国文学』 25-4, 學燈社, p.176

尾崎秀樹(1980) 「有吉佐和子 『紀ノ川』-紀本花」, 『三代の女たち』, ふみくら書房, p.115

尾形明子(1988) 「有吉佐和子 『紀ノ川』の花」, 『現代文学の女たち』, ドメス出版, p.39

8) 有吉佐和子(2000) 『有吉佐和子(作家の自伝109)』, 日本図書センター, p.208

9) 진술한 바와 같이 본 작품은 손녀까지 포함한 여성 3대를 다루고 있지만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모성상’에 대한 고찰은 미혼인 손녀 하나코(華子)를 제외한, 자녀를 둔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하나와 ‘후미오’의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밝혀둔다.

2. 작가의 모성관

작가의 모성관을 확인하는 작업은 『기노카와』의 두 여성에 투영된 모성관을 살피는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인물을 통한 모성상 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밀접한 영향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아리요시는 잡지 『부인화보(婦人畫報)』의 ‘신여성대학(新女大學)’이라는 연재물 중 제12장 ‘항상 어머니다워야 한다(常に母たるべし)’에서 모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여성은 언제나 자신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성은 단지 여성을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여성이 지닌 유일한 최고의 덕성(女の持つ唯一にして最高の徳性)”¹⁰⁾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아리요시 사와코의 이런 확고한 모성관 정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가는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모성 개념을 “순수모성(純粹母性)”과 “역할모성(役割母性)”으로 구분한다. ‘순수모성’은 자신의 자녀를 점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독립체로 인식하며 이와 동시에 다른 이외의 인간을 편견 없는 객관적 의미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이에 반해 ‘역할모성’은 여성이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처음으로 지위와 권력을 얻을 수 있으며 비로소 여자로서의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고 규정한다.¹¹⁾ 따라서 오카모토의 모성개념은 부여받은 역할모성을 뛰어넘는 순수모성의 추구를 지향하였다. 오카모토와 아리요시의 작품세계를 보자면 그 표현방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반에 자리한 정신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작가의 기초에 담긴 정신을 사코(佐古純一郎)는 “모성 이미지(母性のイメージ)”¹²⁾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생명의 본성에 따라 사회공동체와 맺은 깊은 연관 위에서 가족공동체를 재건하며, 생명의 출산자, 양육자, 보호자로서 생명활동에 관한 가치를 생명의 본성에 따라 사회공동체와 맺은 깊은 연관 위에 스스로 다시 평가하고 인식한다.¹³⁾ 아리요시의 작품 속 성(性)이란 ‘생명의 본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대상은 작품 속 인물인 하나 그리고 후미오 등의 여성으로 대표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기에 더해 인간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지닌 것이 바로 아리요시가 끊임없이 표현한 ‘여성’이며 그 위에 자리하는 여성 내부의 최고적인 ‘모성’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과 직접적 연관성을 지닌 잉태자인 성(性)임은 물론 사회와의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그것이 승화된 형상이 작가가 표현하는 ‘모성’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모성을 여성이 지닌 유일하고도 최고로 고귀한 덕성이라고 표현한 아리요시는 “여성으로 태어나 모성을 표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일”¹⁴⁾이라고

10) 有吉佐和子(1960) 『新女大学』, 中央公論社, p.156
11) 与那覇恵子(1980) 「近代の母-岡本かの子」, 『国文学 解釋と鑑賞』45-4, 至文堂, pp.109~110参照.
12) 佐古純一郎(1962), 注3과 같은 논문, p.75
13) 조성숙(2002)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p.108

했다. 하나는 한 사람의 존재에서 벗어나 포용력을 발휘하며 한 단계 격상된 모성에 자리한다. 아리요시가 말하는 모성에 대한 담론은 이러한 하나의 정신적 성장 과정에 투영되며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은 기존의 현모양처에서 벗어나 여러 작용을 통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모성상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류작가 아리요시의 문학 근저에는 모성의 눈(母性の眼)이 크게 뜨여져 있다. 여성에게만 가능한 모성의 눈이 드디어 개안(開眼)되고 있다. 위대한 모성의 문학을 아리요시에게 기대하고 싶다”¹⁵⁾는 사코(佐古純一郎)의 평과 “여자로 태어나서 모성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의 행복한 환경을 구축할 수 없다”¹⁶⁾는 작가의 평소 지론이 『기노카와』의 모녀관계인 두 여성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구현되리라고 본다.

3. 모녀의 극단적 대립

1) 전통적인 어머니, 하나

하나는 할머니 도요노(豊乃)의 교육열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고 지덕체를 모두 갖춘 시대의 보기 드문 여성이며 ‘현모양처상(像)’을 여성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자랐다. 와카야마(和歌山)여고에서 앞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결혼의 의미와 여자의 역할이란 “아이를 낳고 가문을 지키는 것”으로 정립되었다. 그녀의 현모양처로서의 투철한 사교가 더욱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 게이사쿠(敬策)의 역할이 컸다.

할머니가 정해준 마타니(眞谷)가문으로 시집을 가게 된 하나는 결혼식 여흥에서 대면한 신랑에게 어느 순간 “의지할 수 있는 상대라는 증거”를 보았다고 한다. 게이사쿠는 젊은 나이에 춘장을 시작으로 현(縣)의원, 현농(縣農)회장을 거쳐 정계로 진출해 중의원까지 오르며 탄탄대로를 걷는 인물이다. 게이사쿠는 하나에게 있어 이상적인 남성상이었다. 따라서 그녀 자신이 현모양처로서 생활하고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게이사쿠는 하나의 노력에 힘입어 현의원에서 의회회장까지 오르며 성공 가도를 달린다. 그에 반해 그녀의 삶은 자녀 다섯과 집안일을 돕는 식솔들의 대소사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노동의 중심에 자리한다. 그런 그녀를 보며 세상 사람들은 조후쿠인(長福院)의 마님, 마타니 게이사쿠의 현명한 부인이라며 우아하고 결점 없는 여자라고 칭송한다. 이렇게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해내야 하는 시대의 현모양처인 동시에 완벽주의자가 되어간다¹⁷⁾. 일례로 하나가 분가한 시동생인 고사쿠(浩策)의 집을 처음

14) 鈴木秀子(1974) 「有吉佐和子」, 『国文学 解釋と鑑賞』 39-4, 至文堂, p.156

15) 佐古純一郎(1962), 注3과 같은 논문, p.76

16) 有吉佐和子(2000) 注8과 앞의 논문, p.208

17) 尾形明子(1988) 注7과 같은 논문, p.40

으로 방문하던 날을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집안일을 도우러 와 있다는 소문 속 여인을 보기 위함이지만 이런 속내는 당사자를 대면한 자리에서 일순간 사라진다. 작은 체구에 나이도 어리고 낮은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는 측은지심을 느끼고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여자에 대한 하나의 경계심은 자연 소멸된다.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이때를 감정의 동요로 인한 ‘순수모성’의 발현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불과 스물일곱이던 하나는 열 살 아래인 우메(ウメ)의 임신을 알아채고 자신이 직접 고사쿠의 결혼을 추진한다. 우메에게는 마치 친정어머니처럼, 사이가 좋지 않던 시동생 고사쿠에게는 친누이처럼 두 사람을 포용한다. 동시에 하나는 본가와 가족구성원으로 융화되지 못하고 맴돌던 존재인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나의 ‘순수모성’의 성향은 노년에 더욱 표출된다. 지병이 악화되어 병상생활을 하던 하나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손녀에게 이런 말을 남긴다. 자신은 “그저 열심히 했을 뿐(ただ、一生懸命やったよ)”이라고 한다. 현모양처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가 한 이 발언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자신의 모성적 성향 또한 ‘순수모성’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증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하나를 결혼 전 정립된 사고방식대로 현모양처로서의 삶을 영위한다. 그리고 자신이 슬선수범해야한다는 책임감만 있을 뿐 가부장제의 희생물이라거나 억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그녀에게 현모양처로의 모습은 여성이 해야 할 특별한 것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여성의 역할이라고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에게 모성상의 표출은 결혼을 통해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인과물이다.

“후미오는 남편이나 장남에게 업매인 여자의 모습을 보면 참을 수 없고, 인내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지만 난 내 스스로 인내하며 살았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저 열심히 했어.”

(「文緒は、夫や長男にかかりきの女の姿は見ると耐えんやの、忍従の精神は愚劣やのと云うてたけどの、私は自分が忍従してるとは一度も思わんと来ましたえ。ただ、一生懸命やったよ。」) 18)

모성은 역사적 산물¹⁹⁾이기에 일본의 메이지라는 공간적, 역사적 배경에 영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고가 정립되던 시기인 1890년대 일본의 ‘현모양처’는 반동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른 근대화에 일조한 것으로 포장되었다. 지식중시의 여성교육이 여덕(女德)의 폐괴(敗壞)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정조와 절의가

18) 有吉佐和子(1970) 『有吉佐和子選集1 第一卷 紀ノ川』(全26卷), 新潮社, p.248 (이후 텍스트 인용은 쪽수만을 기재한다.)

19) 근대 일본의 여성주의는 후쿠다 히데코의 여권주의, 히라쓰카 라이초를 중심으로 한 『청담』의 여성주의를 거쳐 다카무레 이쓰에의 모성주의로 급속히 전개되어 갔다. 그것은 국가가 강요하는 근대 일본의 젠더이데올로기의 반발로부터 자발적인 내면화로 일변해가는 행보였다. (오고시 아이코 지음, 전성곤 옮김(2009) 『근대 일본의 젠더이데올로기』, 소명출판, p.125)

있는 일본여성의 특성을 계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현모양처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 내에 있어야 한다는 성별역할 분업론을 강화·고정시켰다.²⁰⁾ 이런 형성 과정으로 인해 정숙한 아내, 부드러운 모성 등이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며 급진주의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모성은 인간관계 내에서의 자연적 순리에 의한 관계 맺기의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녀의 현모양처형 모성상은 분명히 시대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하나의 몸속에서 이유 있는 모성이 양산되며 변화를 일으킨다.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는 현모양처이지만 세이이치로(政一郎)와 후미오인 자녀를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볼 때 현모라고 하기에는 주저할 수밖에 없고 작품에 흐르는 하나의 모성은 ‘양모(良母)’적인 모성이지만 ‘현모(賢母)’적인 모성은 아니라고” 해석한 논문도 있다²¹⁾. 자신이 받아들인 교육방침에 맞게 자녀를 가르치려 한 부분이 강요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아들의 부인 중심적인 결혼생활이나 딸의 주장대로 이루어진 도쿄행과 아들의 결혼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볼 때 다른 이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고집불통의 어머니는 아님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의지박약했던 장남 세이이치로는 어머니를 관심의 대상에 두지 않았고 장녀인 후미오는 구시대의 산물이라며 저항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자녀의 행동에 따른 어머니의 상처는 주목하지 않고 자녀에 입장에만 주안점을 둔 것이 기존 연구의 허점이었다. 부모의 뜻에 반(反)하는 자녀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위해 자녀에게 헌신했다는 점에서는 반대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개혁적인 딸, 후미오(文緒)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에 성장한 후미오는 전통을 고수하는 어머니 하나와 대립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시대의 평범한 여성이라기보다 ‘데모크라시’와 ‘자유’, ‘신여성’이라는 용어에 부합하는 변화무쌍한 시대적 영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여성이다. 그만큼 변혁기의 유행에도 민감한 신여성의 모습을 지향하는 그녀에게서 모던걸(modern girl)이라는 신조어 및 자전거의 유행 등 시대의 유행풍속을 엿볼 수 있다. 모던걸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 진출이 두드러진 여성들을 지칭한다. 1920~30년대에 걸쳐 생성된 대중소비사회와 화려한 도시문화의 형성과 더불어 ‘모던걸’이라 불리는 서양풍의 패션과 단발을 한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²²⁾ 또한 개혁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일본의 자전거 도입은 급변하는 다이쇼 시대에 유럽문물의 영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동의 편리성을 수반하며 보급되었지만 정작 도입 초창기에는 남성의 전유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후미오는 변혁선두에 선 인물답게 자전거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사촌의 것을 일부러 빌려 탈 정도였다. 남동생보다 먼저 자전

20) 심경희 외 2인(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pp.247~248

21) 吳敬子(1993) 「有吉佐和子研究『紀ノ川』論」, 『誠信研究論文集』 33, 성신여자대학교, p.139

22) 신하경(2009) 『모던걸-일본제국과 여성의 국민화』, 논형, p.11

거를 익힐 뿐만 아니라 주위에도 적극적으로 권하는 등의 선동적인 그녀의 자세에는 신문물을 거침없이 습득하려는 개혁기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다.

후미오의 개혁·개방적 이미지를 청소년기에는 ‘자전거’가 대변한다면 대학진학을 위해 도쿄로 상경한 성인기에는 ‘자유연애’로 대표된다. 후미오의 자유연애 행보는 ‘정혼(定婚)’에 반대하는 그녀의 언행을 통해 강인하게 표출된다. 혼담을 위해 사진을 찍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부터 후미오는 부모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무시할 따름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가문 간의 연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혼’을 말도 안 되는 악습이라고 여기며 혼담 이야기만 흘러나오면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 시대의 결혼 제도에 극단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던 그녀는 ‘도쿄’라는 공간의 변화를 발판으로 삼아 지역과 가문의 구애 없이 뜻대로 삶을 개척하는 신여성의 모습을 마음껏 펼쳐 보인다.

하나가 전통을 상징하는 것에 반해 후미오는 시대의 변혁을 선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며, 동시에 활발한 여성운동과 함께 신여성의 모습을 상징한다. 후미오에게 개혁 성향은 세월의 흐름이 무색할 정도로 몸 안에 깊고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어머니와 개혁성향의 딸이라는 대립 구조, 즉 하나와 후미오의 정반대된 모습은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세상 여자들은 상당히 의식이 깨어났는데 어머니의 그 구태의연함은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도쿄로 가고 싶은 제일 큰 이유는, 조후쿠인 같이 위엄만 가득찬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성의 선구자가 되겠다고 으스스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머니처럼 구식 여자는 되고 싶진 않아요.”

(「世界の女は随分目覚めてきたのに、お母さんの旧態依然には私はもう我慢ようません。東京へ出たいという第一の願いは、長福院たらいう勿体だらけの家から飛び出すことですね。女性の先覚者になろうと自惚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けども、少くともお母さんのよな昔風の婦女にはなりとうないのですわ」) (pp.121~122)

후미오가 지닌 개혁 성향의 요인에는 ‘데모크라시’ 변혁기라는 시대적 영향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에 대한 반발심이 ‘핵’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후미오도 결혼을 통해 외형상 성실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띠고 남편을 내조하는 일반적인 아내상을 보인다. 그러나 아내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면서도 여전히 변혁기 여성으로서의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던 후미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발생한다. 1910년대,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새로운 여성운동이 일본 내에 소개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상은 새로운 양상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전의 ‘현모양처’는 남녀평등, 여성자립론을 비판한 것으로,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로 가정 내에 있어야 한다는 성별역할 분업론을 고정, 강화시킨다.

개혁성향이 투철한 후미오도 이러한 사상 변화로 인해 두 가지 일을 모두 소화해내

는 어머니로 변모해간다.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뿐 시대의 편협한 요구에 굴하지 않을 것 같던 후미오도 어머니를 대단한 존재로 칭송하는 시류 속에 모든 면을 완벽히 소화해야 하는 ‘신(新)현모양처형’ 모성상에 호응한다.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녀의 모성은, 사회노동과 가정노동을 병행하는 가운데 ‘역할모성’의 성격으로 발달한다. 다시 말해 후미오가 대표하는 ‘신 현모양처상’은 어머니라는 역할과 사회 노동력이 결합된 할당 역할성이 배가된 형태로 변형 발전된다.

전시체제로 들어서자 후미오는 오랜 해외주재에서 벗어나 일본으로 돌아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가족을 걱정하는 모성본능으로 인한 것으로, 전쟁이라는 사회적 배경으로 여성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어머니의 역할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여성사의 새로운 양상이 대두된 것과 같이 후미오의 삶에서도 전쟁이라는 시대적 자극이 작용하여 ‘신 현모양처’라는 모성상을 드러내고 이후 시간의 흐름을 거둬하며 꾸준히 변화 양상을 드러낸다.

후미오는 죽은 남편의 연금과, 화폐가치가 폭락한 현재로서는 재산이라 할 수도 없는 금액의 얼마 되지 않는 예금통장을 지키며 막내 아키히코가 대학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갈 때까지는 허투로 1엔도 쓰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文緒は亡夫の年金と、貨幣価値が暴落した現在では財産ともいえないような額になってしまった僅かな預金通帳を守って、末の昭彦が大学教育を受けて社会に出るまでは無駄な金は一円でも使えないと思っている。) (p.235)

전쟁으로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남편은 시대의 급변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후미오가 공황 상태에 빠지며 기존 성향이 급속회하며 변화를 거둬하는 모습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넉넉히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자녀의 급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사는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란 어렵다. 데모크라시의 여성으로 자기주장이 강했던 모습은 전쟁이라는 외부의 영향으로 왜소해졌으며, 전쟁 이후 여성에 대해 배가된 의미 부여로 인해 생업과 가정 돌보기를 병행하는 그 시대의 표상인 어머니로 변모했다.

4. 인과관계로써의 융합

1) 변화의 실마리인 ‘상실’

남편 게이사쿠는 언제나 하나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다. 하나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아닌 아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발상은 그녀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부인의 덕목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남편이 66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후 오랜 기간 유지해온 아내로서의 역할에 혼돈을 느끼는 하나는 생활의 전면에 나서는 일에 거부감을 가진다. 이는 남편의 부재라는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고착되었던 사상의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혜로운 내조자로 남편의 명예가 상승하는 것에 삶의 의미와 자기 내부의 능력을 확인하던 하나라는 인물에게 예상 가능한 인과관계이다. 이는 “아리요시 문학 속의 여성들은 항상 무언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작가에게 부여받는 것 같다”²³⁾는 스케가와와의 의견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하나는 겉으로 보기에 게이사쿠에게 보호받는 존재였지만 부부관계에서는 완벽한 내조자로서 오히려 남편의 앞길을 위해 그의 내면을 끌어안는,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고 게이사쿠를 받들며 살아온 그녀의 인생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한다. 자아실현은 포기하고 살림에만 집중하던 그녀에게 남편역할의 부재는 또 다른 자아발현의 계기가 된 것이다. 현모양처의 길을 반생동안 걸어온 하나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받아들일게 된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타인에게 따르는 존재로만 비춰졌던 하나는 잠재적 의지를 내면에서 증폭시키고 있었다. 이는 주인공인 하나가 이 작품의 제목인 “기노카와”와 같은 존재임을 인지하는 고사쿠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네 어머니는, 그런 거지. 말하자면 기노카와야. 유유히 흐르면서 걸보기에는 조용하고 잔잔하면서 빛깔도 푸르고 아름답지. 하지만 주변의 약한 강줄기는 전부 자신 쪽으로 흡수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미래가 보이는 수류가 센 강에는 전체적으로 흘러들어 가려는 기백을 가지고 있던 말이지. 과거 기노카와는 지금의 하구보다 훨씬 북쪽에 있는 기노모토의 주위로 흐르고 있었어. 그게 남쪽으로 흐르는 기세 좋은 강이 있어서 말이야, 기노카와는 그쪽으로 전력을 쏟아 흐름 자체가 방향을 바꾸어 버린 거야.”

(「お前はんのお母さんは、それやな。云うてみれば紀ノ川や。悠々と流れよって、見かけは静かで優しゅうて、色も青うて美しい。やけど、水流に添う弱い川は全部自分に包含する気や。そのかわり見込みのある強い川には、全体で流れこむ気魄がある。昔、紀ノ川は今の河口よりずっと北にある木ノ本あたりへ流れとったんやで。それが南へ流れる勢いのいい川があって、紀ノ川はそこへ全力を注いだんで、流れそのものが方向を変えてしもうたんや」) (p.119)

결국 “기노카와”는 하나의 분신이며 동시에 상징물이다. 단지 자신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세계 안에서 목표로 삼는 것을 주위의 인물을 통해 성취하려 노력하는 갈망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 겉으로는 유유히 흘러가는 온화한 강으로 보이지만 약한 수류의 강을 먹어 삼키는 “기노카와”²⁴⁾의 본질과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

23) 助川徳是, 앞의 논문, p.120

24) 나라현(奈良県)에서 물줄기가 시작되고, 요시노초(吉野町)에서 흐름을 바꾸어 와카야마현(和歌山県) 북단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나라현 내에서는 요시노카와(吉野川)라 불리고, 와카야마현에서는 “기노카와(紀ノ川)”로 칭한다.

다. 하나를 “기노카와”로 해석하는 것은, 강인한 모성을 지닌 그녀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기세 좋게 흘러가는 강과 같이 하나의 인생도 끊임없이 변화할 것임을 암시한 요소이다. 따라서 남편의 죽음은, 보호할 대상을 상실한 그녀에게는 세상의 표면에 부상하는 기회이며 약해진 자아정체성을 각성하여 재확립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하나는 자신이 며느리로서 지금까지 마타니가문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황혼을 맞이한 그녀는 전쟁 후 농지해방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 없게 되자 비로소 집안의 책임감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는 “가문의 혼령과도 같은 존재(家靈)”로 살아온 삶이 너무도 버거웠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겉으로는 현모양처의 모습을 보이며 주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으나 정작 자신은 그런 미사어구에 부합하기 위해 과하게 노력했음을 만년에 와서야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딸 후미오의 모성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하나가 남편의 죽음, 남편 역할의 부재라는 ‘상실’을 통해 자아의 재발견을 했다면, 딸 후미오는 차남의 죽음이라는 요소를 들 수 있다. 후미오가 장남을 가졌을 때 하나는 인근 절에 가서 순산 기원(25)을 드리자고 편지를 보낸다. 이때까지도 반항심이 수그러들지 않았던 후미오는 “과학만능시대”에 미신을 믿는 하나의 고리타분함에 치를 떤다. 딸의 격한 반응에 걱정하면서도 강요하지 않은 하나는 딸과 태어날 손자의 안녕을 위해 몰래 기원을 드린다. 바로 이 사건이 이후 후미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1차적 변화 요인이 된다.

“어머니, 미신에 의존하지 않아도 띄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순간 하나의 뇌리에는 지손인 미륵당에 걸어둔 ‘후미오 22세’라고 적은 하얀 유방모양이 떠올랐지만 이제 와서 말할 필요는 없었다.

(「お母さん、迷信に頼んでも玉のような男の児を生み出したえ」

一瞬、花の脳裡には慈尊院の弥勒堂に挙げた、文緒二十二歳と記した白い乳房形が映ったが、この場合いう必要はなかった。) (p.170)

장남을 순산을 한 후 어머니가 믿는 미신에 동조하지 않아도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고 자랑하듯 말하는 후미오 앞에서 하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뒤에 남모를 사연이 있음을 당시 후미오는 알지 못했다. 남편의 중국주재로 상하이에서 차남을 낳은 후미오는 다시 순조로운 신여성의 삶을 영위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약하게 태어난 아이는 타국에서 앓다가 죽음을 맞는다. 하나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미오에게 장남을 임신했을 때와는 달리 차남 때는 집안의 우환으로 순산 기원을 드릴 새가 없었다고 고백한다. 후미오의 행동변화가 발생한 결정적 기점은 바로 이 때로 보여 진다. 너무도 자신만만

25) 순산을 기원하기 위해 하얀 형겅에 메밀 등을 넣어 둥그란 유방 모양으로 한 쪽을 묶어 만든 것을 직사각형 나무판에 붙여 절 내 지정된 당(堂)에 걸어두는 지방 풍습.

하여 주위 사람의 눈에도 조금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강한 주장을 펴뒀던 후미오 또한 저면에는 고귀한 모성을 품은 어머니였음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표출된다.

태어난 아이를 보낸 슬픔은 똑같이 아이를 잃은 부모만이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도 다섯 아이를 무사히 성인으로 키운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괴로울 정도로 부끄럽다고 느끼며 삶의 에너지를 다 쓴 것처럼 의욕이 사라지고 말았다.

(生れた子供を死なせた悲しみは、同じように子供を失った親同士にしか分るまいと思うが、それにつけても五人の子供を恙なく成人させた母上に、この手紙を書くのは辛いほど恥ずかしいと、精も根も尽きたように勢いなくなってしまう。)(p.179)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 공간에서 생활하던 후미오에게 차남의 죽음은 일대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후회뿐(思い出せば後悔ばかりやわ)”이라며 자책한다. 차남의 죽음을 집에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써내려가며 후미오는 자녀를 잃었다는 존재성의 상실 이외의 또 다른 상실을 맛본다. 활발하고 심지어는 전투적이었던 후미오는 차남의 죽음으로 삶의 의욕 또한 상실한 것이다. 그녀를 통해 상실감은 또 다른 상실을 생성한다는 암묵적인 섭리를 깨닫게 된다.

후미오에게 차남의 죽음은 그녀의 잠재된 모성이 발현하는 요인이자 개혁 성향이 급격히 축소되는 계기라 판단된다. 한 인간으로서 유약함을 깨달은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성상을 보여준다. 인간 내부, 특히 여성에게는 결혼 유무를 떠나 모성이 잠재하고 있다. 후미오의 모성상 변화양상은 “모성의 정도나 표출 시기는 개개인의 다양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²⁶⁾이라는 작가의 사상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혼과 함께 모성상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어머니 하나에 비해 딸인 후미오는 이때부터 기존성향인 개혁·개인주의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어부인²⁷⁾의 산아제한에 공명하여, 하나코를 낳은 뒤 두 번이나 임신중절을 했던 후미오가 삼십대 중반을 넘기고 갑자기 출산을 결심한 것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국책을 따라서’였지만, 몇 년 만에야 임신을 하며 모성본능이 확실히 자각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이를 낳고 싶어졌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듯 했다.

(サンガー夫人の産児制限に共鳴して、華子を産んだあと二度も妊娠中絶した文緒が、三十代も半ば過ぎて俄かに出産を思い決めたのは、彼女の言葉によれば「国策にぞって」ということだったが、何年ぶりかで妊娠して母性本能がはっきりそれを自覚すると、矢も楯もなく産みたくなった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らしい。)(p.186)

26) 磯田光一(1986) 『昭和作家論集成』, 新潮社, p.112

27) Margaret Sanger(1883-1966): 미국 여성운동가. 빈민가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산아제한의 필요성을 절감, 반대파와 싸우며 운동을 전개한 끝에 국제산아제한연맹을 조직한다.

후미오의 ‘순수모성’으로의 회귀는 차남의 죽음으로 표면에 부상한다. 또한 이후의 전쟁 반발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이에 따른 가세(家勢) 변화 등을 통해 강인한 모성상으로 변모해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전통을 강조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를 이해하고 전쟁 중에는 친정인 와카야마에 내려가 어머니 곁에서 자녀들을 돌본다. 데모크라시 변혁기라는 시대배경과 어머니에 대한 반발심 등 젊은 시절에는 신시대만을 지향했으나 어머니의 자식사랑, 그 무한한 모성은 이렇게 선대에서 후대로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에 전이된 것이다. 후미오의 모성은 ‘차남의 죽음’, 즉 ‘상실’로 인해 등장했으나 이는 일순간의 격변이 아닌 잠재상태에 자리하던 의식이 부상한 형태이다. 무언가를 잃고 또 무언가를 얻는 작업, 즉 상실은 혼자임을 자각하고 고독함을 느낀 후에 깨우침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제시한다. 상실이란 마이너스이면서 동시에 플러스인 아이러니한 개념으로, 말 그대로 ‘상실’하기에는 잔류성이 강한 역할 또한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모녀의 통합적 승화

하나를 결혼 후 최대한 빨리 마타니가문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노고는 헛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가문을 통솔할 수 있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장남의 자리는 일단 확보했지만 정작 장남은 그 자리를 보존하며 가문을 이어야겠다는 자각과 의지가 없었다. 만약 세이이치로에게 그러한 자각이 있었다면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분명 소중히 여기며 지켰을 것이다. 만년에 하나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은 남편의 죽음이라는 상실감으로 자아의식이 각성된 것에서도 기인하지만 장남에 대한 바람과 기대 또한 상실했다는 점이 또 다른 원인이기도 하다. 세이이치로가 장남으로서의 자각이 없고, 자신이 직면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려는 패기도 없음에 하나는 실망한다. 이런 아들의 보필은 희망이 없다고 깨달은 어머니의 좌절감이 하나의 보수적인 사고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한다. 동시에 장남에 대한 실망은 장녀 후미오로의 전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진정한 어머니의 자세를 보이며 아이들을 길러내는 딸의 모습에서 하나는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게 된다. 이는 모녀의 대립적 성향이 융합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았고 제3의 인물인 ‘하나코(華子)’를 통해 승화된 형태로 거듭난다.

성인이 된 후미오의 딸, 하나코는 노환으로 고생하는 할머니를 간병하며 “이 사람의 피가 내게도 흐르고 있다(この人の血が、私にも流れている)”고 자각한다. 여기서 하나코가 인지하는 가문이란 아버지의 가문이 아닌 한 단계 먼 외가의 혈통을 말한다.²⁸⁾ 이는 전쟁 중 시택이 아닌 친정으로 내려와 피신해 있는 후미오의 “모계가족(母系家族)”에 대한 언급과도 일맥상통한다.

28) 宮内淳子 編(1995) 『有吉佐和子(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71)』, 新潮社, p.39

“원시사회에는 모계가족이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의지하게 되는 것은 시가가 아닌 여자의 친정 쪽이에요.”

하나는 깜짝 놀라며 얼굴을 들었다. [...]

—후미오가 말한 것처럼 마타니 가문의 당주도, 차남도 그 부양가족과 함께 집을 떠나 버렸다. 맹렬한 전사인 지금, 그녀의 주위에 모인 자녀들은 후미오가 말한 것처럼 딸들과 외손자뿐이었다.

모계—.

(「原始社会の母系家族は自然やっつたやと思いませんか。いざとなつて頼るのは、男の家やのうて、女の実家方ですよ」

花は、はつとして顔をあげた。 [...]

—文緒がいったように、真谷家の当主も次男も、その係累とともに家を離れてしまっているのがある。戦局苛烈の今、彼女の周りに集まったものは、文緒のいふように娘たちと外孫ばかりであった。

母系—。) (p.233)

‘모계’라는 후미오의 발언에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고개를 드는 하나의 모습은 시대의 추이 속에 무언가가 급변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속에 장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문의 계승을 일반화하던 시대의 규정이 격벽하는 상황 속에 어딘지 모르게 빈틈을 보이는 것 같은 공허함을 읽을 수 있다. 당시의 일반화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보다는 전시하의 일본, 하나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 형태가 원시사회의 모계가족처럼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후미오의 발언은 모녀의 모성상이 변화를 거듭해 마침내 한 곳을 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하나코의 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모성상의 변화와 통합으로의 길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하나코는 와카야마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하나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성장하면서 느낀 “집(가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

엄마가 할머니께 반발한 덕분에 ‘집’은 하나코의 머리 위를 짓누를 걱정은 절대 없었어요. 할머니.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코는 요즘 격세유전이라는 단어를 문득 떠올렸습니다. 엄마덕분에 하나코는 다른 손자들보다도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ママが反発したおかげで、「家」は華子の頭の上に決してのしかかってくる心配がありませんから。おばあさま。妙なことをいふようですが、華子はこのごろ隔世遺伝という言葉をひいと思ひ出すんです。ママのおかげで、華子は他の孫よりも強くおばあさまに近寄れたような気がするからなのです。) (p.234)

하나코가 인식하는 집과 가문이라는 단어는 “격세유전(隔世遺傳)²⁹⁾”으로 해석되며

29)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한 번 나타났던 조상의 형질이 다시 후대에 가서 나타나는 현상.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이는, 가문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뿌리가 그대로 후대에 전해 내려간다는 뜻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후손의 몸 어딘가에 선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것이며 이는 전승의 개념으로도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격세’이며, 세대 간 연속성이 아닌 변형된 단계성을 뜻하고 한 세대씩을 뛰어 넘어서 같은 형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강조한다. 이는 모녀의 가치관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과도 동일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후미오가 구태의연하다며 하나를 강하게 반발하였기에 하나코는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3대인 자신은 1대인 할머니와 사고 접합이 쉬웠음을 인정한다. 또한 오랜 외국 생활로 인해 객관화된 “집(가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덕분에 도리어 하나의 사상을 약의 없이 포용할 수 있었다고도 말한다. 이런 격세유전을 통한 할머니와 하나코의 연계성은 ‘T. S. 엘리엇의 전통론’을 인용한 그녀의 편지를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다.

T. 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들은 전통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전통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두려워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앞의 것을 부정하고 그 다음 것이 다시 그것을 부정하는 형태로만 전해진다는 엘리엇의 생각에서 저는 뭔가 정신적으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것은 할머니와의 유대방식을 연상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로부터 엄마에게로, 엄마로부터 나에게로, 역시 ‘가문’을 생각하는 마음은 흐르고 있구나 라고 하나코는 생각했어요.

(T. S. エリオットというひとがこんなことをいっているのを発見したからなんです。

「我々は伝統という言葉を否定的な意味でしか使うことができない」伝統というのは、どんなものなのか私には怖ろしくてよく分かりませんが、前のものを否定し、つぎのものがまたそれを否定するという形でのみ伝えられるものだというエリオットの考え方から、私は何か精神的に会得するものがありました。それは、おばあさまとの繋がりを連想したからです。おばあさまからママへ、ママから私へ、やっぱり「家」の心は流れているのだなあ、と華子は思いました。) (p.251)

‘T. S. 엘리엇의 전통론’을 인용한 하나코의 편지를 통해 아리요시의 사상이 T. S. 엘리엇의 전통의식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모성상의 변화라는 그동안의 반응현상과도 일치함을 추측하게 한다. 모성에 대한 일반의 시선은 “앞의 것을 부정하고 다음 것이 다시 그것을 부정하는 형태로”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너무나 편협적인 장애를 끌어안고 이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한 때이다. 모성상 변화에 대한 해석 또한 ‘T. S. 엘리엇의 전통론’처럼 깨달음을 자아내야 하며 아리요시의 의도처럼 통합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충장치가 필요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코는 ‘격세’라는 의미에서 자신에게 전해지는 “집에 대한 마음(家の心)”을 감지

할 때마다 장래 자신이 낳을 아이는 분명 부모인 자신에게 반항하고 조모인 후미오에게 신뢰와 애정을 느낄 것임을 즐겁게 상상해 본다고 전했다. 이런 상상은 “과거에도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인간이 재탄생하여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지금은 비록 힘겨운 나날이지만 내일을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가자는 의욕³⁰⁾을 불러일으킨다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나코는 자신의 몸속에 마타니가문의 집념이 팔팔 소리를 내며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기모토가문의 도요노에서 하나로, 그리고 후미오에서 자신으로 분명히 끊을 수 없는 굴레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가슴 속 고동(鼓動)이 그대로 하나코의 가슴에도 울려 퍼지고 있음을 하나코는 느꼈던 것이다.

(華子は自分の躰の中に真谷家の執念が、どくどくと音をたてて注ぎこまれるのを感じた。いや、紀本家の豊乃から、花へ、そして文緒から自分へと確かな絆が力強く繋がれて、花の胸の鼓動が直に華子の胸に響いているのを、華子はそう感じたのだ。) (p.247)

하나코는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그리고 손녀인 자신에게로 같은 피가 흐르듯 여성의 “업(業)”이라는 것도 ‘기노카와’처럼 흐른다고 생각한다. 후미오가 쑥스러워하며 “엄마, 유방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요?(てれながら、「お母さん、乳房形て、どないして作るんですか」)”라고 하나에게 묻는 순간이 모성통합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이 질문은, 현모양처인 어머니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미신을 믿으며 자식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을 시대에 뒤떨어진 고리타분한 행동으로만 치부했던 후미오가 변화를 모색하는 발단이라 할 수 있다. 원인은 차남 스스무(晋)의 죽음이지만 대립구조를 유지하던 모녀가 지손인(慈尊院)에 순산기원을 드리는 미신을 매개로 조화를 만들 어낸다. 할머니와 어머니를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하나코가 말하는 전통관의 전이와 모성이라는 고귀한 개념은 대립구조로 일관해오던 두 인물을 한 곳으로 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숭고한 ‘순수모성’으로 융합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이 체험한 본질적인 ‘모성’은, 이상(理想)으로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미묘하고 아름다우며 더욱 강인하다고 말한다.³¹⁾ 무엇이든 상상으로의 접근과 현실에서의 만남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 오차의 크고 작음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단언할 수 없다. 아리요시는 작품 활동을 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모성은 일반론에 지나지 않았으며 진정한 모성에 대한 깨우침은 실질적 체험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작가의 이러한 사상은 하나와 후미오의 상이한 모성상의 대립이 승화된 순수모성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도 밀도 있게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0) 有吉佐和子 外(2004) 『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p.201

31) 杉田英一(1986) 「有吉佐和子論」, 『中央大学国文』29, 中央大学校, p.55

하나는 자신의 기존 사고방식인 전통적인 현모양처 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만, 남편의 부재로 인해 자아각성을 인식하고 희생하는 가족원이 아닌 새로운 어머니상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후미오의 모성은 자녀의 죽음으로 두각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절대적인 인과관계를 통한 생성이라 하겠다. 개혁기의 여성인 만큼 전 시대를 상징하는 어머니에 비해 자아가 강인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모성의 표출이 외적 요인을 통해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성격으로 아이러니한 대립구조를 이루던 모녀관계는 통합된 형태의 모성이라는 신비로운 의식을 통해 승화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기노카와(紀ノ川)』에 등장하는 어머니 하나(花)와 딸 후미오(文緒)라는 상반된 성향을 지닌 모녀관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격하 인식되었던 전통적 현모양처 상을 분석, 검토하였다. 그리고 오카모토 가노코(岡本かの子)에게 영향을 받은 ‘순수 모성’으로 승화적 통합을 이루는 모성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노카와』는 아리요시 사와코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집필한 대표작이자 자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작가의 노고의 흔적이 보이며 파란만장한 여성의 모습이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다. 시대의 추이에 동반하는 인간의 양상을 섬세하고도 충실하게 묘사한 작가는 “기노카와”처럼 시대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여성의 변화하는 모습을 모녀관계인 하나와 후미오를 통해 구현하였다.

본고를 통해 아리요시가 여성의 근원이라 인식하는 ‘모성’을 기조에 두고 이 작품을 집필했음을 알 수 있었고 대립구조로 일관하던 하나와 후미오의 극단적 성향이 ‘상실’이라는 요소를 통해 통합적으로 승화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신여성인 후미오는 어머니 하나가 고리타분하다며 한없이 비난하지만 극단적 대립을 보이던 두 여성의 가치관은 각자 남편과 아들이라는 가족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다. 정반대의 모습만을 관찰하던 모녀의 모성상은 가교역할을 하는 하나의 손녀이자 후미오의 딸인 하나코(華子)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한 곳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비로소 작품 후반에는 기존의 모녀 대립구조가 아닌 손녀를 포함한 여성 3대가 가문이라는 미명 아래 동일선상에서 교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성향은 다르지만 모녀인 하나와 후미오는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아리요시가 말하는 ‘최고의 덕성’인 완성된 모성으로 승화된다. 하나라는 인물에만 주목하던 선행연구에서 벗어나 어머니와 딸의 목소리를 분석한 점과, 이러한 시점이 모성의 완성체임을 일찍이 깨달은 작가가 주장하고자 한 주제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잉태하는 모체, 그리고 강인한 여성다

움을 동일한 모성으로 통합하는 작가의 사상은 작품 안의 두 여성을 통해 섬세하게 반영되었고, 무한한 어머니의 사랑을 최고의 정점에 올려놓게 되는 요소로써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参考文献】

- 신하경(2009) 『모던걸-일본제국과 여성의 국민화』, 논형, p.11
- 심경희 외 2인(1999)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출판, p.247~248
- 조성숙(2002) 『어머니라는 이데올로기』, 한울아카데미, p.108
- 오고시 아이코 지음, 전성곤 옮김(2009) 『근대 일본의 젠더이데올로기』, 소명출판, p.125
- 吳敬子(1993) 「有吉佐和子研究『紀ノ川』論」, 『誠信研究論文集』 33, 성신여자대학교, p.139
- 有吉佐和子(1970) 『有吉佐和子選集1 第一卷 紀ノ川』(全26卷), 新潮社
- 有吉佐和子(1960) 『新女大学』, 中央公論社, p.156
- 有吉佐和子(1964) 『紀の川』, 新潮社, p.270
- 有吉佐和子(2000) 『有吉佐和子(作家の自伝109)』, 日本図書センター, p.208
- 有吉佐和子 外(2004) 『有吉佐和子の世界』, 翰林書房, p.201
- 尾形明子(1988) 「有吉佐和子「紀ノ川」の花」, 『現代文学の女たち』, ドメス出版, p.39, 40
- 尾崎秀樹(1980) 『三代の女たち』, ふみくら書房, p.115
- 千頭剛(1975) 『有吉佐和子』, 汐文社, p.54
- 宮内淳子 編(1995) 『有吉佐和子(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71)』, 新潮社, p.39
- 磯田光一(1984) 「紀ノ川のゆえ -有吉佐和子論」 81-11, 『新潮』, 新潮社, p.112
- 佐古純一郎(1962) 「有吉佐和子」, 『国文学 解釋と鑑賞』 27-10, 至文堂, p.73, 76
- 助川徳是(1972) 「近代女流の文学 有吉佐和子」, 『国文学解釋と鑑賞』 37-3, 至文堂, p.120
- 鈴木秀子(1974) 「有吉佐和子」, 『国文学 解釋と鑑賞』 39-4, 至文堂, p.156
- 藤沢全(1980) 「有吉佐和子「紀ノ川」の花」, 『国文学』 25-4, 學燈社
- 与那覇恵子(1980) 「近代の母-岡本かの子」, 『国文学 解釋と鑑賞』 45-4, 至文堂, pp.109~110
- 杉田英一(1986) 「有吉佐和子論」, 『中央大学国文』 29, 中央大学校, p.55

要 旨

The River Ki is the utmost masterpiece of Sawako Ariyoshi that describes three generations of Japanese women who lived through different times. The amount of effort and passion she poured into the novel is apparent, and its plot wholly represents the aspects of women who endured such extreme era. Ariyoshi captured the dimensions of people being swayed by the torrent of the era in detail. Like the river Ki which seems to flow peacefully and yet hides swirling current underneath the seemingly gentle stream, the characters fully unravel the changes in the women's sense of maternity that took place through the dynamic times.

As studying *The River Ki*, it becomes apparent that Ariyoshi wrote this novel based on the sense of 'maternity' which she understood as the root of the womankind. In the novel, readers can witness how consistently antagonistic, drastically different senses of maternity of Hana and Humio are finally sublimated into one. Hidden underneath the changes lies the element of 'loss' -the absence of husband and the death of second son. Their opposing sense of maternity is united by Hanako-Hana's granddaughter-who built the bridges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two. Contrary to the first half where the mother-daughter conflict arose, as the novel runs to its latter half, the complet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 three generations of women is finally achieved. Although the beginnings were different, the sense of maternity accomplished harmony transcending the lengthy time that began from the era of the mother, Hana, to her daughter Humio and ended in the generation of Hana's granddaughter Hanako. Then it is sublimated into the 'complete sense of maternity' that Ariyoshi believes is the ultimate virtue. It is the core of description of maternity by Ariyoshi who realized early that complete portrayal of the sense of maternity can only be achieved by representing the voices of both the mother and the daughter

키워드 : 有吉佐和子(Sawako Ariyoshi), 紀ノ川(The River Ki), 母性(maternal),
 母と娘(mother and daughter), 対立(conflict), 喪失(loss/lose), 融合(fusion)

투 고 일 : 2015. 2. 28
 심 사 일 : 2015. 3. 14
 게재확정일 : 2015. 4. 4